

냉면에 역사와 문화라는 ‘고명’을 올리다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냉면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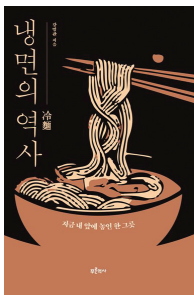
강명관 지음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음식 가운데 하나가 냉면이다. 그다지 호불호가 심하지 않은 음식이다. 오히려 좋아하는 음식 중 냉면을 꼽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한여름 얼음 동동 떠 있는 물냉면을 먹은 기억들이 있을 것이다. 답답한 가슴까지도 시원하게 씻어 주는 감칠맛 나는 육수를 들이마시고 나면 더위는 저만치 밀려간다.

달짝지근하면서 매콤한 양념과 잘 쪄진 소고기, 반쪽의 달걀 등이 정갈하게 조화를 이룬 비빔냉면은 어떤가. 더위에 달아났던 입맛을 돋우는 데 비빔냉면만한 음식도 없다.

시나브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고 소리 없이 가을이 무르익어가고 있다. 냉면이 생각나는 계절은 아니지만 뭔가 새로운 맛을 느끼고 싶다면 냉면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다양한 학문을 곁들여 냉면을 조망한 ‘냉면 역사’는 냉면에 관한 모든 것을 담고 있다. 강명관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가 저자로, 그는 냉면을 모티브로 맛깔스럽게 면의 이모저모를 분석해낸 다.

요즘 사람들만 냉면을 좋아했던 것은 아니다. 우리 옛 문헌에는 선조들이 국수를 좋아했던 기록이 있다. 냉면은 국수의 한 종류로, 국수의 역사를 알아야 냉면의 기원과 종류 등도 알 수 있다.

이용기는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 (1924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국수는 온갖 잔치에, 조반이나 점심에 아니 쓰는 데가 없나니, 어찌 경(輕)하다 하리오? 누구를 대접하던지 국수 대접은 밤 대접보다 낮게 알고, 국수 대접에는 편육 한 점이라도 놓나니, 그런 고로 대접 중에 나오니라” 이 말은 조선 사람들도 편육이 들어간 국수를 좋아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한 사발의 냉면, 다시 말해 국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다. 여기에는 역사와 사회, 경제, 문화 무엇보다 사람살이의 ‘오미’ (五味)가 담겨 있다.

냉면이라는 음식 이름이 최초로 등장한 것은 연제일까. 1558년 4월 20일 ‘목재일기’에는 “낮잠을 자다 깨어 곧 ‘냉면’을 먹었더니 발바닥이 차가워졌

다”는 내용이 나온다. 말인즉슨 차가운 냉면을 먹었더니 발바닥에 찬기운이 돌았다는 의미다.

강 교수에 따르면 ‘냉면’이라는 어휘가 한국음식사에서 최초로 나오는 부분이다. 물론 이 구절에서 냉면을 밀가루로 만들었는지 혹은 메밀가루가 재료인지는 명확히 단정할 수는 없다.

이와 달리 차갑게 해서 먹는 국수에 대한 내용은 ‘산가요록’에 기술돼 있다. 수라화, 만이장면 등의 공통점은 면을 찬물에 여러 차례 행귀 차게 한 상태로 초장 등에 말아먹는 국수를 일컫었다.

국수를 먹기 시작한 것은 삼국시대로 추정된다. 전설과 유사한 이야기가 전해온다. 여름 날 진흥왕이 순찰을 나갔는데 가지고 갔던 궁중음식이 상했던 모양이다. 신하들이 메밀국수에 얼음을 띄워 진상한 것이 냉면의 시초였을 거라는 얘기가.

고려인들도 국수를 즐겨 먹은 것으로 보인다. 고려에 사신으로 온 송나라 서금이 10여 가지의 음식을 접대받았는데 국수가 제일 맛있었다는 기록이 ‘고려도경’에 나와 있다. 또한 서금은 고려의 밀 생산량이 적은 탓에 송나라에서 들어온다고 기술했다.

고려 문인 이색은 ‘하일즉사’라는 시에서 냉국수를 찬탄했다. 특히 중국의 냉국수 일종인 ‘괴엽냉도’를 맛있게 먹은 경험을 글로 표현했다. 강 교수는 ‘괴엽냉도는 찬 국수다’며 “괴엽냉도를 냉면과 연결 지을 구체적 근거는 없다”고 언급한다.

책에는 냉면의 역사뿐 아니라 ‘과학’의 에피소드



역사
사회
경제
문화
사람



냉면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 역사와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채로운 분야가 스며 있다.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도 기술돼 있다. 찰기 없는 메밀로 보다 맛있는 국수를 만들기 위해 ‘세판’을 도입하거나 국수들의 모양을 복원하는 대목 등도 나온다. 1939년을 전후해 박병천, 최응도라는 인물이 국수기계를 개발했다는 기사도 소개돼 있다. 아울러 냉면에 올린 돼지고기 부패로 식중독이 급증하자 1946년에는 냉면 제조, 판매가 금지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저자는 말한다. 주문을 받아 자전거로 배달하는 방식이 통용되면서 냉면은 도시화와 근대화의 선두에 섰다고. 맛있는 ‘냉면 경제학’의 단면이다.

<푸른역사·2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그렇다고 죽을 수는 없잖아

원영 지음

눈이 소복이 쌓인 숲길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는 여인, 그리고 그 곁에 조용히 앉아 있는 두 마리의 강아지. 책 표지의 한 장면이 마치 우리 마음속 겨울을 비춘 풍경처럼 다가온다.

“걱정 말아요, 죽지 않을 테니.” 원영 스님의 목소리는 차갑고 고단한 계절 한가운데서도 다시 살아갈 힘을 건네준다.

불교방송 법문과 다양한 활동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원영 스님이 쓴 ‘그렇다고 죽을 수는 없잖아’는 수행자의 시선으로 현대인들의 불안을 다정하게 어루만지는 산문집이다. 책의 부제는 ‘올어도 쓰러져도, 다시 살아지게 하는 힘에 관하여’다.

원영 스님은 책을 통해 “살다 보면 나약할 때도 있고, 피로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진 않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책은 총 4부로 구성돼 있다. ‘봄, 그렇다고만 할 수는 없잖아’로 시작해 여름·가을·겨울로 이어지며 삶의 계절을 담담하게 서술한다. 반복되는 상실과 두려움, 마음의 폭풍 속에서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한 언어들에 담겨 있다.

책은 단순한 위로나 종교적 교설이 아니라 수행자의 삶에서 우리나라 담담한 기록이자 한 인간이 건넌 체험의 언어다.

방송과 강연을 통해 삶의 무게에 지친 이들에게 자신이 직접 겪고 사유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로와 용기를 전해왔던 저자는 이번 책에서도 과장되지 않은 언어로, 독자가 자기 삶의 자리에서 천천히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끈다.

“혼자서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다. 내 발로 다시 걷기 시작할 때까지, 내 곁에 있어준 존재들이 있었다”, “모든 순간이 파문어 놓은 당연한 진리를 우리는 너무 쉽게 잊고 살아간다” 같은 문장들이 깊은 울림을 남긴다.

<불광출판사·1만80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재활용의 거짓말

문관식 지음

우리는 오늘도 ‘분리배출’을 실천한다. 일회용 그릇을 씻고, 라벨을 떼고, 비닐을 말리고, 우유팩을 행귀 내놓는다. 번거로움을 감수하면서까지 쏟아지는 일회용품이 조금이라도 다시 쓰이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하지만 그렇게 공들여 버린 쓰레기들은 과연 어디로 갈까. 정부는 재활용률 80%대를 자랑하지만, 실제로 다시 자원으로 되살아나는 비율은 극히 낮다. 유럽 기준으로 재산정하면 한국의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16.4%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다.

환경정책 전문가 문관식 교수가 펴낸 ‘재활용의 거짓말’은 이 간극에서 출발한다. 저자는 재활용률 80%라는 화려한 통계와 ‘친환경’의 언어가 감춘 구조적 모순을 해부한다. 시민은 분리배출을 실천하지만 자원 가격이 떨어지면 기업은 그 쓰레기를 곧바로 태운다. 행정은 실적 관리에 몰두하고 제도는 여전히 복합재질과 ‘OTHER’ 분류의 벽 앞에서 멈춰 있다. 이제는 ‘왜 줄이지 못했는가’가 아니라 ‘왜 줄이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는가’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책은 먼저 ‘재활용’이라는 개념 자체를 다시 묻는다.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열 회수나 소각은 재활용으로 보지 않는다. 쓰레기가 실제로 물질로 재사용될 때만 ‘진짜 재활용’으로 인정된다. 반면 한국은 소각 후 에너지를 얻는 행위까지 성과로 계산한다.

문제는 제도만이 아니다. 효율을 명분으로 민간에 맡겨진 재활용 체계는 정부의 통제력을 약화시켰고, 시장 논리에 따라 자원 흐름이 좌우되는 구조로 굳어졌다. 자원 가격이 하락하면 분리된 폐기물은 다시 소각장으로 향한다.

저자는 “공공성이 회복되지 않는 한 진짜 순환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시민·기업·정부가 함께 정책 설계와 감시, 평가에 참여하는 ‘다중적 거버넌스 모델’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그때에야 비로소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사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헤르문하우스·1만7000원>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AI시대 미디어 문해력

이승화 지음

AI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드는 시대다. 알고리즘은 우리가 봐야 할 세상과 보지 않아도 될 세상을 가려낸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무엇이 진짜인지 구별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졌다. 이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필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문해력’이다.

윌리엄 코칭 전문가 이승화의 ‘AI시대 미디어 문해력’은 디지털 시대에 ‘읽는 법’을 다시 묻는 책이다. 문해력은 더 이상 글을 읽고 쓰는 능력에 머물지 않는다. 뉴스, 유튜브, SNS, 웹툰과 영화, 게임까지 세상과 마주하는 거의 모든 통로가 미디어로 연결된 지금 읽어야 할 텍스트는 곧 ‘세상’이다. 저자는 “문해력은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힘”이라고 정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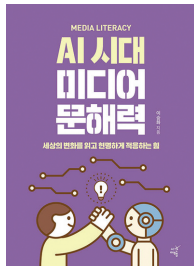
책은 먼저 ‘AI와 함께 사는 법’을 짚는다. 단순히 기술을 따라잡는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힘이다. “AI가 당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활용하는 사람이 당신을 대체한다.” 저자는 AI 시대의 문해력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사회적으로 소통하며,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힘’으로 정의하며 이 능력이 곧 ‘대체 불가능성’의 근거가 된다고 강조한다.

책은 미디어의 양면성에도 주목한다. 유튜브와 SNS, 웹툰과 게임은 정보를 얻는 통로이자 여가의 공간이지만 동시에 가짜뉴스·알고리즘·과잉·디지털 성범죄 같은 어두운 그늘을 낳는다. AI가 만든 가짜뉴스나 딥페이크 같은 문제는 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문해력의 퇴보가 낳은 결과라는 지적도 인상적이다.

기술은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질문을 던지고 의미를 찾아내는 사람만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주체적으로 설 수 있다. AI가 만든 미래를 두려워하기보다, 그 속에서 나만의 목소리를 세우는 법을 배우는 일이 책이 전하는 문해력의 본질이다.

<시간여행·1만6800원>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창고 매매·임대

대 지 920평

건 물 680평 (1·2층)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127-3
(도로변·육교옆)

문의 062.220.0513
010.3646.2701